

#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수행

## 前 조계종 기본선원장 영진 스님, 불교아카데미 주최 My Leaders Club서 간화선 법문

“고타마 싯달타 태자는 인도의 훌륭한 사상가들을 찾아다녔으나 변인이 미진함을 느낍니다. 그는 마침내 ‘내가 모든 고행을 다 겪어보았더니 결국 나의 스승은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승을 구하려 다니던 일을 내려놓습니다. 태자는 깨달음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나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가 주최하는 MY Leaders Club에서는 영진 스님의 ‘대승수행의 전통과 실제’ 공개강좌가 진행됐다. 영진 스님은 부처님의 일화를 설명하면서 깨달음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구하려 들지 말고 내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클럽 회원 외에도 영진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온 많은 대중이 참석했다. MY Leaders Club은 불교사상의 정수를 시대언어로 재조명하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 모색하기위한 모임으로 매주 목요일 7시 30분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정리=천진영 기자

### ‘니르바나’는 완벽한[滅] 상태

여러분은 열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열반은 니르바나(nirvana)에서 온 말입니다. 니르바나 또는 닐반이라 하던 것이 열반이라 음역됐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한자로 풀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니르바나는 어떤 상태 입니까? 니르바나는 탐진치가 완전히 연소된 상태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탐욕심,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생각이 멸한 완전한 상태입니다.

“도가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릴 땐 구름도 쫓고 축지법도 쓰게 될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에서 멸진정에 이르러 깨달은 후 천안통(天眼通), 천이통(天耳通), 누진통(漏盡通) 등 신통을 얻었습니다. 현대는 비행기가 축지법보다 빠른 세상입니다. 인터넷에 온갖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직 누진통만이 부처님이 되는 방법입니다. 누진통은 번뇌를 모두 끊어서 두번 다시 미혹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보던 것을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니르바나를 성취하면 어떻게 됩니까?”라는 물음에 사리불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무가 활활 탄 모두 연소하면 나무는 무엇이 됩니까? 그냥 소멸할뿐,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한 그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음 수행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49년 동안 부처님의 설법을 8만4000 법문이라고 말합니다. 꼭 그 숫자만큼 있다가 보다는 그냥 ‘말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열반에 드실 때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倒)·일(一)·설(說)입니다. 불가피해서 말을 하긴 하지만 결국 최후에는 본인이 직접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백미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心)입니다. 설법은 유지원생에게 할 때와 노보살에게 할 때가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하고 덜 중한 것이란 없습니다. 고존하고 미진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때 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바로 선(禪)입니다.

겐지스 강 of 모래알만큼 많은 법문이 있다고 합니다. 무한한 가르침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단지 변화할 뿐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듯이 없던 것이 아니고 모양만 변화하는 것입니다. 무상하다는 말은 바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없어졌다고 괴로워하고, 얻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피어나듯이 모든 것은 무상, 변화합니다. 바로 이곳 여기서 깨어있는 것이 ‘선’입니다.

### ‘천상천하유아독존’은 인류최초의 평등사상

인도에는 법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급의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인도에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한 것은 시대·사회적 배경을 생각하면 목숨을 건 말입니다. 이는 인류최초의 평등사상입니다.

불교의 만민평등사상은 6조 혜능 스님에게서도 잘 나타납니다. 뿔나무꾼이었던 혜능 스님은 노모를 봉양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천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선비가 외던 <금강경>을 듣고는 불법을 배울 것을 결심합니다. 나무 판돈을 저축해 흥인 대사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납니다. 요즘처럼 출발 전 전화를 해서 “5조 흥인 스님 계십니까?” 하고 미리 물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약도 없습니다. 수 천리를 찾아가는 그 결심결음이 바로 신심입니다.

티벳 사람들은 오체투지가 아닌 전신 투지를 하면서 5000km를 걸어갑니다. 그들의 기원은 ‘세계 평화’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바람입니까. 아야 혜능 스님은 이런 마음으로 한발 한발 내딛었을 것입니다. 이런 6조 혜능 스님의 불법은 문명이 가장 발달된 당나라에 떨치게 됩니다. 당나라에서 송나라때까지 선의 황금시기가 이어집니다.

화두는 말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어 이전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화두 하나로 흘러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산의 대(大)분출이 있으려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간화선 수행은 ‘고3 처럼’

간화선이 최상승법임은 분명합니다. 조계종 종헌 종법에는 선종을 표방하고 간화선을 수행법으로 삼는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선은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간화선은 당나라 시대에는 임금에서 재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하는 수행법이었습니다. 문은 즉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 ‘왜’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이런 간화선이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 위빠사나도 하고 수행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선이 통하려면 ‘선’이 왜 좋은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건강에 좋은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앉으면 호흡도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호흡이 바르면 몸에 균형이 잡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중심이 서게 되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간화선의 조건을 굳이 말하자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분지(大憤志), 대신근(大信根), 대의정(大疑情)입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대신근입니다.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선지식을 찾아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좀 해볼까하는 마음으로서는 어렵도 않습니다.

화두를 ‘이뭇고’라고 합니다. ‘이뭇고’는 경삼도 말 중에 가장 훌륭한 말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뭇고’가 잘 안돼서 ‘무’자 화두로 바뀌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잔디를 바위로 눌러두면 잔디가 밖으로 빠져나오듯이 무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죽을 때까지 이뭇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간화선이 어렵다지만 철저히 공부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3 시절처럼만 공부하면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

이 방안에 금방이라도 설사가 나올 것 같은 사람 귀에는 제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에는 화장실이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것처럼 간화선이 가장 중요해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면 간화선을 할 수 없습니다. 선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있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마음 공부라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공부라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또 쉬어야 마음이 고요해 집니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또렷해져야 합니다. 적적성성(寂寂惺惺) 성성적적(惺惺寂寂)입니다.

고독을 즐기고 들여다보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숨이 끊기기 전에 10만번 아마타불을 외우면 극락세계에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기 직전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삶을 살려면 살아가면서 무수히 반복된 수행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삶이란 수처자주 임처게



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언제 어디서나 나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똥 속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펄쩍 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똥 속에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 속에도 있고 평범한 일상 속에도 있습니다.

내 말이 여러분의 증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길이 확실한 길이라고 흔들림 없이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수행만이 자기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 영진 스님은...

1972년 김계 금산사에서 도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용봉 스님과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법호는 회허(懷虛).

1999년부터 3년간 조계종 기초선원장 겸 동화사 선원장,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봉양사, 해인사, 통도사, 백담사 무급선원, 은해사 기기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해 온 스님은 현재는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서 정진 중이다.

#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광사

연등승하강 장치인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하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하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